

군산시민 위한 사업추진 본격화

강임준 시장,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 해 되도록 최선” 당부

강임준 군산시장의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린 3일 정례회의에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상반기 내 준공되는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원활한 시범 운영 △원도심 상습 침수 예방사업,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지키는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연초부터 분야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경우, 그간 발굴한 군산형 인구정책 및 인구관련 교육특구 사업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강 시장은 “2월은 본격 사업 추진 시기이다. 따라서 사업의 ‘시의 적절성’

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절차 이행, 도·부처 협의, 타시군 사례조사·벤치마킹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올해로 10기를 맞는 ‘익산시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매력을 전파하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제10기 익산시 소셜미디어기자단 출범

92명 지원 3:1 경쟁률... 영상전문가 등 30명 선정

발대식 · 교육 시작으로 이달부터 활동 본격 돌입

올해로 10기를 맞는 ‘익산시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매력을 전파하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제10기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 이달부터 취재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기자단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30명으로 구성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 지원한 92명의 후보 중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들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자단에 영상기자 10명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공모전 수상자, 사진·영상 전문가가 포함됐다. 시는 전문 자원을 활용해 변화하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릴스(Reels) 등 짧은 영상 콘텐츠 생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발대식을 열고 각 기자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전달했다. 기자단은 이날 활동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공식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자단은 앞으로 시의 다양한 정책과 소식, 명소, 맛집, 문화·관광, 축제 등을 직접 취재해 생생하게 익산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안과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국 각처서 선정된 30명의 기자가 전문가의 역량과 참신한 시각으로 익산의 다양한 매력 발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펜싱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8일까지 14일간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 진행 · 중국 펜싱팀 45명 첫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익산에서 뜨거운 담금질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실내체육관과 바다비체육센터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가 주최 ·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훈련에는 사브르, 에페, 플뢰레 중목

별 남자 선수 24명, 여자 선수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김창곤 전임감독을 포함해 지도자 6명과 의무 트레이너 1명이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일부터는 중국 산둥성 펜싱팀이 합류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산둥성 펜싱팀은 이달 7일까지 선수와 감독 등 총 45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익산시는 첫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선수단이 훈련

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펜싱팀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목표를 향해 씬 없이 달리는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선수단이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유망주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펜싱 전용구장 등 우수한 체육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매년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농업인대학, 전문 농업 인력 양성 나서

제18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 125명 모집... 11일까지 신청

청년 딸기코칭 · 쌀 대체작물 · 농산물가공 · 신규농업반 과정

익산시가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제18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청년딸기코칭반 30명 △쌀대체작물반 30명 △농산물가공반 25명 △신규농업반40명 등 4개 과정 125명이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청년딸기코칭반은 18~49세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모집 요강과 신청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농촌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발된 합격자는 2월 21일 개별 통보되며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농업인대학은 3월 입학의 시작으로 11월까지 9개월간 전문 이론교육과 우수농가 견학, 실습 등 과정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시의 비전인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자 청년딸기코칭반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익산에서 많이 재배되는 딸기를 주작물, 상추와 멜론을 후작물로 교육

이 이뤄질 예정이다.

쌀대체작물반은 전작작물직불제에 대응해 논콩, 가루쌀, 밀, 조사료에 대한 재배기술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농산물가공반은 예비 창업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 SNS 활용 마케팅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 이수 후 판매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창업이 가능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주어진다.

신규농업인반은 농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와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지원과 연락처는 △청년딸기코칭반 · 쌀대체작물반(063-859-4946) △농산물가공반(063-859-7247) △신규농업반(063-859-4517)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자 21가구 모집

신축 · 개축 · 재축...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용자 지원

익산시가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촌 활성화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자 21가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업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용자를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40세 미만(1985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보건소, 노인의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산시보건소는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회복을 돕기 위한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의 영구치 손실로 저작이 어려워 의치 보철물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 보철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 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개인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방문하거나 보건소로 전화 신청(454-5846~7)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의치 담당자(454-5846)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19일

한다혜 작가 초청 강연

군산시립도서관은 2025년 인문학 특강의 시작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5’ 공동저자인 한다혜 작가를 초청, ‘소비트렌드로 바라보는 2025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운영한다.

19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한다혜 작가는 오피노아·토핑경제·무해력·기후감수성 등 2025년에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한다. 또한 최신 지식 정보를 제공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전수할 예정이다.

강연 현장 참여자 접수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및 전화로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서관총계(☎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